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가 직접 제정한다

8 백승호 기자 | ㉠ 승인 2020.04.14 16:21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선전전 전개



세종충남지역본부 선전전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역 조합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승리' 선전전을 전개했다.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선전전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특수고용, 파견, 용역, 중소기업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가장 취약한 층에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타격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정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넘어짐, 무너짐, 화재폭발 등의 사고성 사망재해와 중금속 중독, 뇌심혈관계질환 같은 직업성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해 해마다 약 2천4백명의 노동자가 출근 뒤 퇴근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노동자가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전전에 함께 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상만 수석부지부장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결국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법이 될 것"이라고 외치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법을 제정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종충남본부 안재범 노동안전보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현장이지만 자본의 이윤을 위해 작업중지권은 축소되고, 위험의 외주화는 확대되고 있다"고 분노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근로감독권을 행사 해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근로감독을 하고있다"고 꼬집으며 "민주노총은 다치지않고, 죽지않고, 병들지 않는 노동현장을 위해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충남지역본부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정상만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 백승호 기자



안재범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특위장 © 백승호 기자



백승호 기자 nanda6636@hanmail.net